

저널을 통해 본 인테리어디자인 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

- 코시드 저널 1983-1992(vol.30)를 중심으로 -

A Journal-Based Study of the Composition of Interior Design Discourse

- Focused on the KOSID Journal from 1983 to 1992(vol.30) -

이철재* / Lee, Chul-Jae

Abstract

Professional journal articles, while eye-catching, may also be somewhat superficial and formal. In fact, interior design magazines focus on providing images rather than texts to appeal to readers. Thus, it has been difficult for interior design magazines to represent interior designers who are serious about their career. The KOSID Journal, on the other hand, is not a professional journal, but handles current issues that are most sensitive and important to professional interior designers and provides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interior design trend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KOSID Journal, from its founding issue (1983) until it began to serve academic purpos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ior Design Association in 1992 and discussions of the interior design discourse of the time.

키워드 : 코시드 저널, 인테리어디자인담론, 비평

Keywords : KOSID journal, Interiordesign discourse, Critiqu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2-3종에 불과하던 실내건축 관련 잡지들이 부정기 간행물을 포함하여 30여종에 이르면서 실내디자인계는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1980년대는 일반적으로 한국 실내건축역사에서 활성화에 속하는바 양대 올림픽과 시장개방에 따른 다원적인 열린사회에서 디자인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기였다. 계속되는 외국 기업체의 한국 진출로 인한 사무공간에 대한 설계와 인테리어 전문 잡지와 그 관련 잡지들의 창간으로 대중화 도미노 현상이 생겼다. 특히 이 시기에 창간된 건축문화, 건축과 환경, 플러스, 월간인테리어, 실내장식 등 새로운 저널들은 각기 성격을 달리 하는 편집의도를 가지고 기존의 공간지나 꾸밈지 등의 대표적인 디자인잡지와 차별화된 형태로 발행되기 시작되었다.

이들 잡지의 발간으로 새로운 차원의 비평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비평의 질적, 양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¹⁾ 하지만 1979년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를 결성하여 실내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하

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동의 담론을 구성하여 1983년 6월 KOSID INTERIORS지를 창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창간호가 발행되면서부터 보다 현실적이고 궁극적인 당면의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창간호의 선언문 중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이 실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00여명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상징되는 대규모의 공공건물에서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거건축에 이르기까지 밀집 건축물들이 늘어남으로써 실내디자인의 필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는데 반해 비전공의 종사자가 속출하는 현상이 점증되고 있다.” 이상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양과 자질을 우려하고 실내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언문의 일부분이다.²⁾ 그만큼 KOSID INTERIORS지는 인테리어 분야의 급작스런 팽창에 두려움과 염려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준비하고자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내디자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KOSID INTERIORS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 중 국제화와 위상 및 제도, 그리고 관련 분야연구 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타산지식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1) 김봉렬, 한국건축 비평계의 흐름, 건축, 1990, p.9

2) 오인옥,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자각, KOSID INTERIORS 1985년 12월, No.10 p.3

* 이사, 호서대학교 예체능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조교수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저널리스트에 의해 만들어진 저널은 나름대로의 전문성 있으나 다소 피상적인 구성과 형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테리어 잡지들은 대부분 판매부수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독자층을 사로잡기 위해서 텍스트 중심의 구성이 아닌 이미지 위주의 작품 소개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대상이나 문화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대변하기에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다. 반면 코시드 저널의 경우는 전문적인 저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전문직으로서 인테리어를 수행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그 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진지하게 다루기에 그 시대 실내디자인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시드 저널의 1983년 창간호부터 1992년 실내디자인학회가 창설되어 학문적인 역할을 할 때까지의 총 30권 각각의 콘텐츠(쪽지)들을 분석한다.

이 시기는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기이고, 국제화·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건설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의 분야에서도 가장 변화가 많던 시기였기에 이를 반영하는 담론들이 형성이 되었으리라 판단한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콘텐츠와 내용의 다루어진 횟수에 따른 중요도를 통해 당시 다루어진 내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위상이나 자격제도, 면허제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는 창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를 초월한 당시의 노력상을 살펴본다.

2. 실내디자인의 흐름

한국의 실내디자인계의 흐름을 보면 1979년 한국실내디자인협회(현재 한국실내건축가협회로 개칭)가 창립되어 1982년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었으며, 이듬해인 1983년에 협회지 창간호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DI)에 가입되어 이사국으로서 활발한 국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3년 2년의 임기로 민영백이 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한국 실내디자인학회(KIID)가 1992년에 창립되면서 학술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학술적인 부분에서 협회는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아시아실내디자인학회연맹(AIDIA)을 결성하고 경원대학교의 오인욱교수가 초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역할

을 이어 오고 있다.

2.1. 디자인의 개념 정립시기(60년대)

“1960년대 들어 실내공간의 모양새를 갖추는 일의 개념이 장식이나 장치의 해석에서 디자인의 개념으로 해석 전환의 시초라 본 것은 대체로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1965년 서울 명동의 ‘그린양화점’에서 상업적 홍보효과에 성격질은 실내장치 설계를 현상공모한 것을 원인으로 본다”라고 박홍은 그의 저서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 언급하듯이 60년대 중반부터 인테리어가 디자인으로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50년대 중반 한국 현대건축이 태동한 시기만 해도 디자인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패션디자인이나 도안한다는 말로 대신하는 국부적 표현이 고작이었다. 생산적이나 투자의 개념보다 낭비나 소비의 개념으로 디자인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인지 못하고 60년대를 맞이하였다.³⁾

이 시기 실내디자인을 보면, 50년대의 실내디자인이 시민사회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53년 서울 수복 후의 일로서 전쟁으로 폐허화한 서울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앞과 소공동, 명동의 상가들이 새로 개장한 시기인 것이다.

“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을 했던 실내장치가(그 당시의 명칭)로 꼽을 수 있는 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 김관현씨를 비롯하여 김영찬, 손계풍, 이명구, 이명호, 이봉선, 길경일씨 등이다. 그때의 사실들은 1979년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 협회가 창립되어 ‘꾸밈’지가 특집기사로 김정동교수를 통해 김관현, 길경일, 손석진, 이범호씨 등과 인터뷰를 하여 기사화됨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필자는 60년대 중반부터 인테리어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김관현, 길경일씨의 실내작품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서부이촌동에서 문을 연 중국식당 ‘홍보성’은 김관현씨의 작품으로, 당시에 번두리인 그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백색과 빨강색의 대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산뜻한 분위기를 내면서도 품위있는 실재를 연출해낸 디자인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중략)

명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길경일씨는 송옥양장점 등 오늘날의 명동상가가 있기까지 수많은 상점들을 설계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중적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를 했으며 그의 작업은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⁴⁾고 초대 코시드회장 조성렬은 말한다.

2.2. 양적팽창과 정신적 피폐(70년대)

3)윤우석, 논단 : 한국 실내디자인의 가야할 길, KOSID INTERIORS 1986년 12월, No.14 p.3

4)조성렬, 논단:한국인테리어디자인의 40년, KOSID INTERIORS 1992년 4월 No.30 p.8

1970년대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정착기로서 해외건설 붐과 아파트 건설 등 건설의 호황, 오피스빌딩의 양산, 유흥업소의 기업화 등 모더니즘의 토양 속에서 빠른 속도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더불어 인테리어 역시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지만 건축 환경이 피폐한 만큼 인테리어도 피폐한 환경을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다.

당시의 디자인 사고에 대한 내용이 월간 건축인 poar 2006년 8월호에서 디자이너 민영백의 인터뷰 내용에 함축되어 잘 나타난다. “실내디자인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똑같이 느낀 것은 있는 것 같군요. 1970년대 초 유신헌법 발표 직전에 우리는 하이엔드, 즉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이랄까, 굴욕이랄까, 그런 것이 내재돼 있었다고 봅니다. 전문디자이너로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지만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요. 그런데 디자이너에게 힘이 부족했어요. 그 당시 집권여당의 핵심권력자의 이야기인데 그런 권력자들보다는 그 밑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언의 저항이었는데 그마저도 잘못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디자이너에게 개인의 존엄성, 전문성,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논리적인 설명에도 권총을 들이댈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독재하는 체제 아래서는 너무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현실과의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행동들이 퇴폐나 자포자기로 비춰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소위 그때 상류층에서는 많은 스캔들, 그리고 대중에서는 저항문화가 생겨난 것 같아요. ...(중략)배는 부르네 정신적으로는 비굴했던 시대였습니다.”⁵⁾

즉 이 시기는 인테리어는 그 위치를 확고하게 정착할 만큼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었지만 정작 창의적이고 의식 있는 담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기에 사상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불가능한 시기였던 것이다. 즉 군사독재정권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사회의 몰이해로 인한 디자이너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무기력은 결국 자신들만의 퇴폐로 이어졌다.

2.3. 혼돈의 시대의 공간질서(80년대-90년대 초)

현재는 다양성의 시대이고 혼돈의 시대라고들 한다. 새로운 사상과 사조의 등장, 그리고 첨단 테크놀로지의 접목으로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짐으로 인해 디자인의 영역은 그 끝을 모르게 확장되고 섞여지고 있다.

하지만 80년대 또한 같은 건축적인 맥락으로 보면 현대건축

사에서 새로운 건축시도가 활발하던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1977년 찰스 쟁크스(Charles Jenks)에 의해 ‘포스트-모던 건축의 언어(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를 발간하면서 완벽한 기능주의를 표방하는 모더니즘의 권태감에 진저리치던 건축은 본격적으로 포스트모던의 흐름 속에서 ‘사조(-ism)’이냐 아니면 단순히 흘러가는 ‘패션(fashion)’이냐에 대한 격론 또한 요란하던 시기였다. 또한 동시에 포스트모던조차도 불만족스러워하던 이들에 의해 포스트모던이 자리 잡기도 전에 탈근대의 열망은 후기구성주의(Post-Constructivism)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 해체주의(Deconstruction)로 이어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즉 1982년 베르나르 추미의 라빌레트 공원, 1983년 자하 하디드의 홍콩파크 현상설계당선안 등이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공간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의 흐름이 요동치면서 인테리어 디자인은 더 큰 변화가 생겼다. 모더니즘의 깃발 아래에서 기능주의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창의성보다는 건축가에 의한 논리적 구성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주의가 쇠퇴하면서 장식성의 요구가 많아지고 또한 해체되면서 다양한 창의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실험정신은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새로운 업역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바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인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는 90년대 들어 몇몇 실험적인 작가들에 의해 모더니즘의 깊은 뿌리를 가진 토양에 조심스럽게 해체적인 작품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 완공된 조건영의 JS빌딩은 철골구조를 노출시키고, 철근콘크리트로 형태를 만들어 예각과 둔각의 조화를 가진 해체적 성격의 구성을 하였다. 그리고 1991년 배병길의 국제회랑 증축공사에서도 기하학적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인테리어디자인의 담론 형성을 보기 위해 건축의 모습을 보는 이유는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지금도 건축담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에서 초기의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는 자체적으로 담론을 생산해내지 못했다. 거의 모든 담론은 건축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인테리어디자인에서 재사용하는 형식이었기에 건축의 사조와 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사조와 담론으로는 그렇다 해도 83년부터 90년까지 80년대는 고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거대한 국제행사도 이루어지던 그야말로 한국경제의 부흥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부흥과 함께 인테리어 경기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풍요로운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하여 참다운 인간환경 공간을 창조하자는 새로운 개발의지로 다양한 요구가 세계화와 함께 등장하던 시기였다.

5)대담(연재):한국실내디자인의 원류를 찾아서, 건축인 poar, 2006년 8월 vol.24, p.56

3. KOSID 저널 콘텐츠 분석

코시드 저널의 성격은 일반 저널과는 차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테리어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협회지이기엔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의 가장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디자인에 관련된 저널리즘의 영역은 도시환경, 건축, 가구, 공예, 회화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편집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다. 인테리어 저널리즘의 활성화는 지식정보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커다란 자극을 주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있는 저널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소리의 비판이 뒤에서 가끔 들려오곤 한다. 저널지의 기능과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내용과 불륨이 그 정도밖에 안되는지 등등에 관한 내용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잡지의 기능에는 보도 및 전달기능과 환경감시 기능이 있다고 한다. 저널지는 협회의 간행물로서 그 성격상 보도 및 전달기능에 거의 치중되어 있다.⁶⁾

이 저널의 1983년 창간호부터 1992년 vol.30까지의 콘텐츠는 논단, 특집, 연구, 논문, 칼럼, 디자인노트, 좌담회 등이 거의 매 회 동일하게 게재되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국제화·세계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성을 담고자 하는 꼭지-해외교육, 해외정보-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며, 국제행사 유치 및 가입 등에 대한 꼭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3.1. 논단

논단은 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 사회적·제도적 보장 등 인테리어 디자인의 당면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실었다.

<표 1> KOSID지 콘텐츠 중 '논단'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직업 및 직위	내용	구분
83/6 No.1	올림픽과 문화적 아이러니	박 흥	KOSID 명예 이사	올림픽과 문화	1
83/9 No.2	인테리어 디자인의 금석	김 원	회장	과거와 현재 조명	4
83/12 No.3	전문직으로서의 인테리어 디자인	문신규	KOSID 부회장	Decorator에서 Interior Designer로 용어 정의	5
84/4 No.4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의 전시와 코시드의 역할	김길홍	KOSID 이사	전시기능과 코시드	6
84/7 No.5	환경디자인의 새로운 개념 '아키텔리어'	손석진	KOSID 2대회장	환경디자인 Architectural 제안	5

84/11 No.6	실내디자인교육	배만실	명예이사	실내디자인 교육 현실 및 필요성	2
85/4 No.8	인테리어디자인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윤도근	명예이사/총의 대표수	실내디자인 자격과 제도 및 교육에 대한 제언	2.5
85/8 No.9	인테리어 디자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이병호	이사/다건건축의장연구소소장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정체성 건축과의 관계정의 고민	5
85/12 No.10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자각	오인욱	이사/(주)테크노전무	'집장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방치에 대한 반성	5
86/3 No.11	86아시아경기대회와 전시운동	심구택	이사/큐빅디자인연구소이사	86아시아게임/특수한 도시설계/다양한 문화행사, 전시 행사 증가	1.3
86/6 No.12	건축과 내외부 환경디자인	이창근	이사/우원디자인대표	건축 계획 과정 중에 환경과 설비 등과의 collaboration	8
86/9 No.13	올림픽과 환경디자인	조성렬	명예회장	올림픽기간 중 사인 및 조형물 등의 환경디자인	1.4
86/12 No.14	한국실내디자인의 가야할 길	윤우석	이사/토탈디자인이사	한국적 토양의 실내디자인으로서의 덕목 강조	5
87/3 No.15	우리나라 대학에도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신설이 시급하다	윤희	이사/문화대학교 대표	대학의 양적 확대에 불구하고 인테리어학과 부재에 대한 비판	2
87/6 No.16	도시 속에 우리의 내음을...	이원표	이사/은산건축디자인연구소 대표	한국적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 구축	4.a
87/12 No.17	'87KOSID전의 재조명	오의조	이사/아트프렌 대표이사	코시드전의 규모나 관심의 확대에 인한 심사제 조정	7
88/3 No.18	긍정적 전환기를 맞이 위한 몇 마디	민영백	이사/민인테리어 대표	감성적 문화생활 충족 인테리어 지향	3
88/6 No.19	한국인테리어디자인의 위상	박 흥	명예이사	인테리어디자인의 위상 제고	5
88/12 No.20	인테리어디자인의 역할	오기수	코시드 부회장/스페이스5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역할 및 정체	5
89/4 No.21	우리는 어떤 디자이너인가?	조용수	이사/서울디자인 대표	디자이너로서의 덕목(파렴치한 디자이너들이 범람하기에...)	5
89/11 No.22	우리 시대의 거울에 어떤 자화상을 비추일 것인가	박경호	이사/진양인테리어 대표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디자이너의 역할	5
90 No.23	인테리어디자이너와 직업관	심구택		직업관	5
90 No.24	내일에 거는 기대	김 철		위상	5
90/12 No.25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전문화	김경무	상임이사/탐인터내셔널대표	인테리어디자이너의 높아진 위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5
91/3 No.26	인테리어저널에 새로운 활력을	박혜숙	이사	코시드 저널의 실내환경에 대한 건전한 역할	6
91/6 No.27	대전EXPO93과 인테리어디자이너의 역할	최은영	이사/SAK인테리어 대표	EXPO에서의 역할 기대	1
91/10 No.28	APSDA91을 준비하며	이병호	부회장/다다인터내셔널대표	인테리어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준비를 위한 다짐	1
92 No.29	이해가 있는 선택	오기수			4
92/4 No.30	한국 인테리어디자인 40년	조성렬	초대회장/큐빅 디자인대표	한국 인테리어디자인의 역사 속에서 위상 확립	5

상기 구분은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범주화 한 범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나머지 다른 꼭지에도 적용된다.

<범례> 1.국제 2.교육 3.문화 4.환경및사회현상 5.위상및제도 6.협회및대전 7.디자인 a.한국적디자인 8.재료 9.CAD

6)박혜숙, 논단:인테리어 저널지에 새로운 활력을, 1991년 3월 No.26 p.8

3.2. 연구 및 논문

연구 및 논문은 당시 논문을 실을 변변한 학회지가 없어 학술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1992년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창설-에서 학술적인 연구 소재 개발에 대한 의지를 논문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서구의 모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우리 것에 대한 경시를 아쉬워하면서 86년 박수자의 '현대적 한국디자인 접근방법' 등과 같이 한국적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싶어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당시 서구식 생활방식과 부동산시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아파트의 폭발적인 공급에 의해 주거에서 거실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85년 최정신의 '거실공간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거실공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2> KOSID지 콘텐츠 중 '논문'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구분
85/8 No.9	거실공간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최정신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거실이라는 새로운 개념 고찰	거실
86/3 No.11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의한 주거공간계획의 방향	박인학	한국인 의식구조에 의한 주거공간계획의 지향적 방향제시	주거
86/6 No.12	현대적 한국디자인의 접근방법	박수자	일반 전통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의 전통미 표출	한국적,a
86/12 No.14	협회 회원의 현황과 실태 분석	오인욱	회원의 출신학교와 전공학과별 분포도, 연령별 취업상태, 졸업연도별 학력현황	기타
87/3 No.15	주방용 가구의 첫수에 관한 조사분석	최정신	향상된 생활수준에 따른 서구화 입식가구들의 디자인 연구	주거
87/6 No.16	오피스 실내환경 개선의 방향	오영근	급격하게 등장한 O.A 시스템과 사무실환경 고찰	오피스
87/12 No.17	도심호텔의 중간영역 계획에 관한 연구	권순역	도심호텔의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대한 제언	호텔
88/3 No.18	아파트 거실에 관한 조사 연구	정연미	아파트 거실의 구체적인 공간 계획 연구	거실
88/12 No.20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 디자인에 관한 연구	곽수영	환경문제에 새로운 비전 제시하는 환경색채 디자인	색채
89/4 No.21	거실환경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김선중	거실환경을 평가 환경표현 어휘와 요인구조 규명	거실
89/11 No.22	의류상점의 실내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현진	의류상점 디자인	상점
No.23	고층부 레스토랑의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이창로	고층부 레스토랑	상점
No.24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홀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김영석	청소년 다목적 홀	기타
91/3 No.26	호텔 뷔페레스토랑의 공간디자인에 관한 연구	백국현	호텔 뷔페레스토랑	호텔
91/ No.29	초고층아파트 중간층의 공용공간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추은영	초고층아파트 공용공간	주거
92/4 No.30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박 흥	현대건축 및 실내디자인 표현 특성	한국적,a

<표 3> KOSID지 콘텐츠 중 '연구'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구분
89/4 No.21	행동심리학과 실내환경디자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경호	behavior와 실내환경디자인	4
89/11 No.22	행동주의 과학으로 본 인테리어디자인	김현경	뉴튼·데카르트적 과학사고를 전근대적으로 보는 진보사고	4
90/12 No.25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교육의 연구	편집부	실내디자인교육 현황에 대한 국내의 조사 분석	2
91/3 No.26	인테리어설계업무와 CAD의 도입	김말근	CAD설계업무	9
91/6 No.27	CAD 시스템 조인	김말근	CAD시스템 하드웨어	9
91/6 No.27	손님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점포구성	이 훈	점포구성	상점

91/10 No.28	유통시장 개발에 따른 유통업관련 기초자료 연구	심낙훈	소비자중심 유통업	4
No.29	인테리어재료-목재	김민수	목재 분석	8
92/4 No.30	인테리어재료-유리	김민수	유리 분석	8
	인테리어재료-금속	김민수	금속분석	8

상기 '논문'은 용도별로 연구가 이루어져있어서 구분란 역시 용도별로 정의 하였다.

3.3. 칼럼 및 제언

초기의 칼럼은 회원칼럼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코너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본래 의미의 칼럼의 성격은 논단이 대신하고 회원칼럼에서는 자성 등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89년부터는 주로 회원 칼럼으로 형식을 바꾸어서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보인다. 게다가 91년부터는 세계사나 디자인 경향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면서 일반 회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하여 여러 사람이 회원칼럼을 쓰도록 하였다.

<표 4> KOSID지 콘텐츠 중 '칼럼'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구분
85/4 No.8	인테리어디자인의 새로운 영역	김정동	초기의 인테리어를 '작은 건축'에서 '건축개조'의 영역 확립	5
86/6 No.12	커뮤니티 공간과 영상(video)	박현기	영상매체와 커뮤니티의 결합/정보사회로의 미래 환경 변화 예측	4
86/12 No.14	인테리어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	이우권	건축과 차별되는 인테리어의 전문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2
88/3 No.18	겉질 깨는 아픔	박종인	인테리어 디자인의 난립상 지적과 설계비의 필요성, 그리고 정체성과 면회제도 등	5
88/12	내가 낸 돈으로 잘들 쳐발랐군	김민수	공간 계획에 따라 사람의 감성을 좌우할 수 있기에 신중 필요	5
89/4 No.21	아파트 문화를 선도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윤태혁	증가하는 아파트로 인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등장	3
89/11 No.22	세계속의 코시드가 되기를...	이창노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위상	5
No.23	우리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오영근	인테리어 디자이너 위상	5
No.24	여성과 전문직과 그리고...	곽영혜	여성의 사회진출	4
90/12 No.25	세계속의 코시드가 되기를...	이창노	세계화	1,6
91/3 No.26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며 나를 돌아보며 이제라도 우리는 눈을...	손유찬 권영옥 김민수	자격증 및 회원증 자료축적 전통개념	5 5 a
91/6 No.27	현장민주화 디자이너의 진정한 배려모습은... 참회록 디자이너의 갈망	이은용 이우권 김형곤 박영봉	시공성 및 작업능률 디자이너위상 복제 창작과 모방/갈등	8 5 5 5
	인테리어디자인 누구에 의하여 주도될 것인가? 보다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KOSID라는 울타리안에서부터라도...	강호준 남은주 김현주	인테리어 페미니즘 반성과 노력 난립 상에 대한 고민 반성	4 5 5
92/3 No.30	진정한 디자이너의 모습은 자신의 색깔과 맛을 낼 수 있는 디자인	나종윤 이병윤	작가정신 작가정신	5 5

<표 5> KOSID지 콘텐츠 중 '제언'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구분
85/8	협회와 회원들의 결속을 바라며	이성근	인테리어디자이너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에 대한 제언	5
85/12 No.10	학술발표회 인테리어 강좌 행사 바람직...	이용재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권익 옹호	5
86/12 No.14	인테리어 계획에 있어 건축설비 주안점	김덕수	인테리어 계획 시 건축설비의 중요성 및 디테일 특히 열손실	7

3.4. 특집

특집은 주로 외국의 인테리어 동향을 통해 국내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즉 84년 이연숙의 외국대학의 인테리어 디자인교육, 85년 일본, 유럽, 동남아의 인테리어 동향과 국내의 지방도시-부산, 대구-의 현실을 동시에 살펴 보기도 하였다. 좌담은 인테리어계의 당면한 문제를 협회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표 6> KOSID지 콘텐츠 중 '특집'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구분
84/11 No.6	외국대학의 인테리어디자인교육	이연숙	인테리어디자인 역사 및 교육 등 제반 환경 조영. 외국대학(미국)의 교육 커리큘럼 분석	2
85/4 No.8	국내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현실(일본편)	오인욱	현대 일본 인테리어 디자인의 위치를 다루면서 공업화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하면서 다양성의 변화 수용	1
	(유럽편)	김병훈	복합적 개념에 입각한 유럽의 인테리어디자인	1
	(동남아편)	심구택	동남아(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인테리어 디자인 동향	1
	(부산편)	김태근	항구도시 부산 인테리어 디자인 동향으로 소비성 주점	1
	(대구편)	박재봉	대구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조망	1
85/8	(광주편)	박중운	광주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조망	1
87/3	서울시 유통시설의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백화점 중심-	오기수	서울시의 성장에 따른 유통산업의 역사적 발생의 배경 및 변천과정	4
87/6 No.16	80년대 인테리어디자이너 작업환경	편집부	디자이너들의 작업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O.A시스템과 함께 유행처럼 만들어진 사육 소개	4
87/12 No.17	인테리어디자인 87코스드전연례회원작품전	편집부	회원작품전과 함께 협회상 수상 ;민영백(아트리움), 박홍(무심제), 조용수(KOFFICE)	6
88/12	아시아 스페이스 포럼	편집부	한일 그리고 대만 3개국 단체연합 포럼으로 각국의 전통실내공간의 특성이 나타난 디자인 사례 발표	1
88/11 No.22	코스드 인테리어 대전	편집부	코스드대전	6
89/11 No.22	코스드인테리어대전	편집부	코스드대전	6
89/11 No.22	APSDA 동경	편집부	3개국 주제발표, 패널토론, 강연	1
No.23	아시아 태평양 실내디자이너회의	오인욱	참가보고	1
No.24	"NEOCON 22" 국제행사 참가보고	민영백	참가보고	1
90/12 No.25	90KOSID인테리어대전		코스드대전	6
91/6 No.27	에드워드 스즈끼	한정임	대담 할리와 비할리	
91/10 No.28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의 인테리어디자인	이인호	국제적 개방과 인테리어	
No.29	APSDA Congress '91		창립총회 '91-행사보고	
92/4 No.30	한국인테리어디자이너 라이선스제도의 확립		코스드 학술세미나	

3.5. 특집좌담 및 보고·행사

특집 좌담은 좌담회 형식으로 주로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신임회장단의 임기 내 활동의지나 국내외 행사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등에 대해 패널을 모시고 집중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특히 89년 이후에 좌담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또한 보고·행사에서 아시아 환경, IFI 등 국제적인 관심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표 7> KOSID지 콘텐츠 중 '특집좌담'분석표

발간일	제목	내용	구분
86/12 No.14	"협회"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은?	협회 활성화 방안 모색	6
88/6 No.19	아시아스페이스포럼 개최에 대한 좌담회	APSDA 개최좌담회	1
89/4 No.21	'89협회에 바란다	신임회장단(오기수외)과의 좌담회	6
No.24	현대 실내디자인에서 전통의장의 표현	한국적 전통 수용	a
91/3 No.26	제7대 신임회장단에게 물어본다	신임회장단(이창근외)과의 좌담회	6
91/6 No.27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	관련업체 의견	
92 No.29	APSDA Congress'91을 마치고		1

<표 8> KOSID지 콘텐츠 중 '보고 & 행사' 분석표

발간일	제목	내용	구분
87/3	아시아 도시상업 환경회의에 참가하고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아시아 도시상업 환경회의' 참관기	1
89/11 No.22	IFI국제실내건축가협회		1
89/11 No.22	IFI정식회원국가입		1
88/12	88 코스드 회원 세미나	한국살림집의 공간구성 분석(김홍식 명지대학교수)	a
89/11 No.22	형태와 공간은 바르게 보이는 것인가	조각가의 눈으로 본 건축	7
88/3 No.18	협회상 심사	작품성과 완성도	6

3.6. 기타

그리고 그 이외에 디자인에 대한 현장 감각과 회원작품을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87년 12월부터 회원작품을 중심으로 협회상을 제정하여 민영백, 박홍, 조용수 등이 처음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 밖에 자재정보나 협회 소식 등으로 나머지 지면을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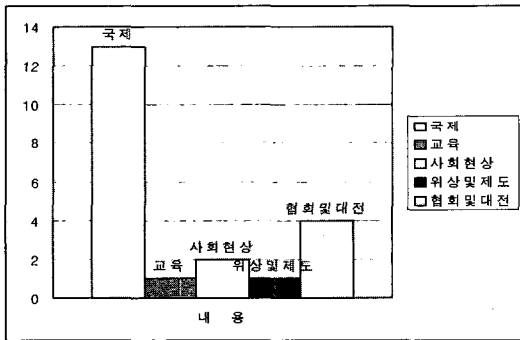
<표 9> KOSID지 콘텐츠 중 '디자인노트' 분석표

발간일	제목	기고인	내용
86/3 No.11	인테리어+디스플레이	심낙훈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88/12	현대 디자인의 흐름(2)-근대에서 현대	정연미	모더니즘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면서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 조명
89.4 No.21	현대디자인의 흐름(2)-근대에서 현대	정연미	당시 현대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후반부
89/11 No.22	인테리어디자인의 사조-두세기말을 잇는	三輪正弘	19세기말에서 20세기말까지의 인테리어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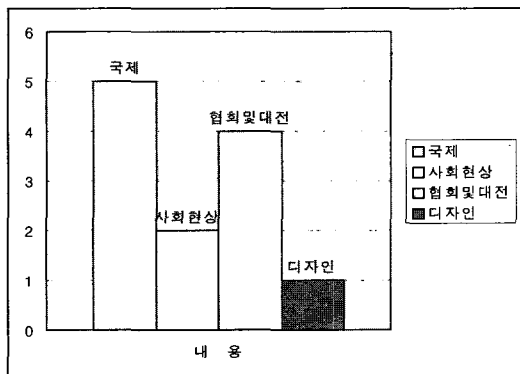
4. 결과분석 및 내용

(1) 국제관련 내용

80년대에서 90년대 초는 모더니즘의 숨 막히는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국제화 현상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 발전에 가속도가 붙은 국내 현실은 이를 반영하듯 86·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이후에 급속도로 국제화 현상은 늘어나면서 국제적 기구 가입이나 행사 개최 등 점차 세계화일 흐름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에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도 APSDA 개최, IFI가입 등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코시드 저널에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년 3월호(통권26호)부터는 해외교육, 해외정보란이 생기면서 외국의 교육정책, 라이선스 등 정책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1> '특집' 분석



<그림 2> '특집좌담, '보고&행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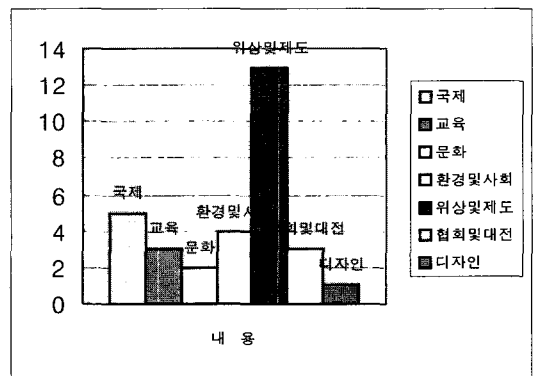
지표에서 보여 지듯이 '특집', '특집좌담', '보고', '행사' 등은 국제적인 행사들로 거의 채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제화·세계화라는 흐름에 순응하면서 대처하려는 의지가 보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2) 위상 및 제도(교육 포함)적 확립

이 시기는 실내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 또한 상당했다. 무엇보다도 자질에 대한 시비와 시공의 질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인 위상의 보장에 대한 요구가 일기 시작하였지만 이후 20여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실현되지 않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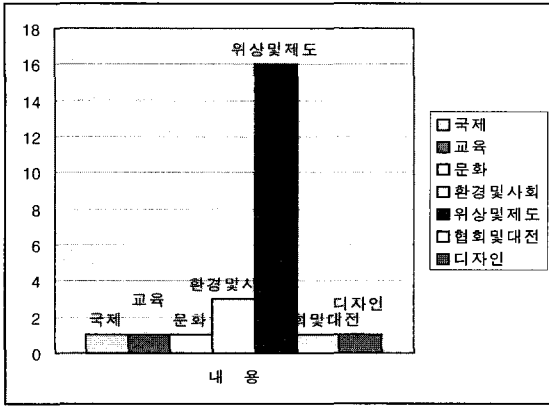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조선미술전람회가 창설된 것이 1922년이고 공예부가 처음으로 생긴 것이 1932년이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대학에는 미술과, 도안과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디자인 교육이 시발되었다.⁷⁾

하지만 80년대에 실내디자인은 급증하고 대학도 양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실내디자인학과의 부재는 실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기관의 부재는 디자이너의 위상이나 제도의 확립에 걸림돌이었고, 전문가의 양산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교육에 대한 의견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실무자 중심의 저널이다 보니 교육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껴지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되지만 풍부한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참신한 감각과 조형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만큼 좀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이 안타까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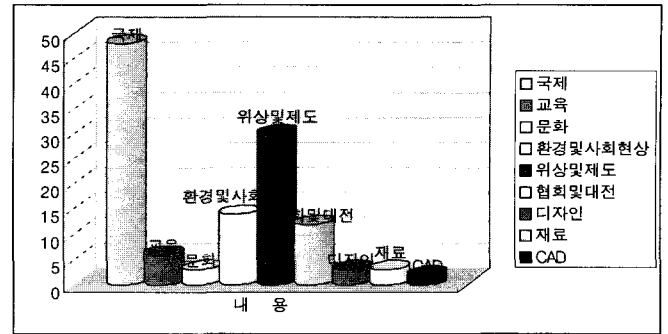
<그림 3> '논단' 분석

7) 배만실, 논단:실내디자인 교육, KOSID INTERIORS 1984년 11월, No.6 p.2



<그림 4> '칼럼' 및 '제언' 분석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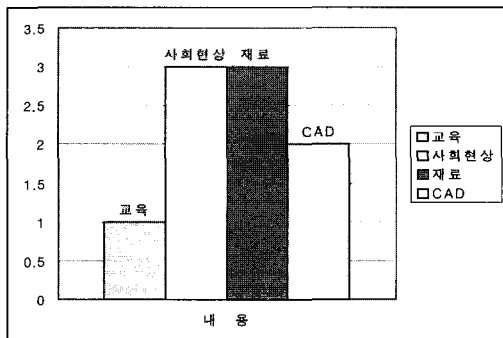
<그림 7> 30권 전권 쪽지에 대한 분석(분야별 도표)

(3) 논문 및 연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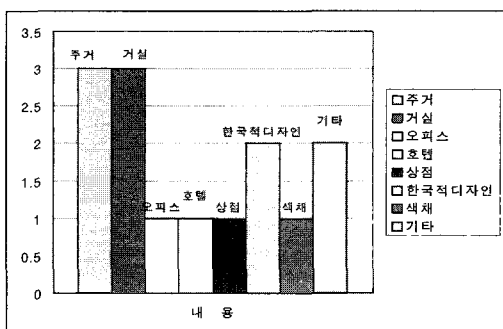
실내디자인관련 학회지가 없었던 관계로 다양한 연구가 논의되었는데, 특히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따라 사상의 조화와 그 양식에 보조를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인간의 생태는 변하지 않아도 생활을 구성하는 사상과 환경은 격변하고 있음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문들이 등장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주거공간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연구와 거실공간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건설경기의 붐 상황과 아파트 열기를 반영해주고 있으며, 서구화되어가는 주거공간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오피스빌딩의 O.A시스템, 상점공간, 무엇보다도 컴퓨터의 등장으로 CAD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림 5> '연구' 분석



<그림 6> '논문' 분석

도표에서 보여지 듯 전권의 쪽지의 분석에서도 국제화에 대한 대응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위상과 제도 확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저널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이 좀 더 많은 공론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위상과 제도에 대한 고민해결에 기틀을 제공해주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적 전통성에 대한 디자인의 고민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앞선 3장의 표 구분에서 'a'로 표시한 것에서 나타난다. 불과 5개정도의 쪽지에서밖에 다루어지지 않았음이 이를 증명하는데, 이는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바빠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디자이너의 등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든가, 디스플레이나 유통산업에 대한 관심 등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나머지 90년대와 2000년대를 분석하여 본 논문과의 흐름을 연결함으로써 한국 실내디자인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담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홍,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2001
2. 남경숙, 한국 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미건사, 2002
3. KOSID INTERIORS 창간호(No.1)~1992.4 No.30
4. 한국실내디자인의 원류를 찾아서1, 디자이너 조성렬, 건축인 poar, 2006.6, vol.122
5. 한국실내디자인의 원류를 찾아서2, 디자이너 손석진, 건축인 poar, 2006.7 vol.123
6. 한국실내디자인의 원류를 찾아서3, 디자이너 민영백, 건축인 poar, 2006.8 vol.124
7. 서수경, 한국 실내건축계의 비평적 상황과 과제모색,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호 2001.12
8. 심은주·박현수, 실내디자인학 연구에 대한 실무자들의 견해에 관한 고찰
9. 남경숙, 한국현대실내디자인에서 지역성의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호, 2001.6
10. 오인옥, 실내건축업역의 실내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7호, 2003.4

<접수 : 2006. 8. 31>